

## 성인에서의 흉막폐 모세포종 1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 교실<sup>1</sup>

김기욱\*, 이준희, 이지석, 김윤성, 이창훈<sup>1</sup>, 이민기, 박순규

흉막폐 모세포종(pleuropulmonary blastoma)은 소아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남성과 고형, 혹은 남성과 고형의 혼합된 형태를 보이며 이들 중 남성 형태는 양성 남성 병변으로 오진될 우려가 있다. 임상경과는 형태에 따라 다른데 남성보다 고형이 좋지 못하며 내체적으로 예후는 불량하여 진단 1-2년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nivel 등은 흉막폐 모세포종을 보고하면서 소아에서만 발생하며, 병리학적으로 암종 요소는 없이 발생모체적 요소와 육종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폐 모세포종(pulmonary blastoma)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이후 성인에서 발생한 흉막폐 모세포종 2예가 보고 되었으며, 저자들도 성인에서 흉막폐 모세포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21세 남자가 2주간의 좌측 흉통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검사실 소견상 이상소견 없었으며 단순흉부 X선 촬영상 좌측에 흉수가 있었고,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좌측 폐하부에 파열된 종격동 낭기형 종으로 의심되는 다낭성 종양이 보였다. 흉수 세포검사상 악성 소세포들이 발견되었고, 종양 절제를 위해 개흉술을 시행하였다.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미분화된 발생모체적 조직으로 구성된 남성벽과 고형 병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면역조직검사상 vimentin에만 강한 양성을 보였다. 수술 후 vincristine, actinomycin, cyclophosphamide로 항암치료를 계획하였으나 환자가 원치 않아 시행치 않았으며, 수술 후 6개월까지 재발이나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좌우 기관지 모두에서 발견된 생선등뼈로 인한 폐쇄성 폐렴 1례

황원민\*, 최유진, 나문준, 이원영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기도 이물흡인은 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특히,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높으며, 이때의 이물 제거는 주로 전신마취 하에 경직성 기관지경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의식이 명료한 선행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의 이물흡인은 매우 드물고, 대개가 근위기도폐쇄와 생명을 위협하는 질식을 일으키나, 때로는 이물이 후두를 통과하여 몇 주에서 몇 년까지 무증상으로 지내거나, 기관지폐쇄를 일으켜 폐쇄성 폐렴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물의 위치는 기도의 해부학적 구조와 흡인 당시의 체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부분 우하엽에 주로 흡인되고,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보고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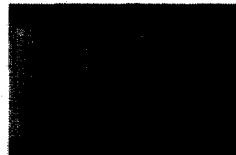
그러나, 본 증례와 같이 좌우 양측 기관지 모두에 흡인되어 동시에 기관지를 폐쇄시켜 폐렴을 야기시킨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저자들은 5개월 동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왔던 64세 남자폐렴환자에서 굴곡성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좌우 양측의 기관지에 흡인된 생선 등뼈를 제거한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한다. 임상위가 잠재적인 이물 흡인의 임상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며 기관지 내시경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써 사망 혹은 이물 흡인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Chest PA, lat.)



(Bronchoscopic finding)



(생선등뼈)